

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상

화상의 종류와 원인

	열탕 화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커피, 차, 라면 등 뜨거운 액체를 몸에 쏟았을 때 입는 화상
	접촉 화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데기, 냄비 등 열기가 남아있는 물건에 피부가 닿았을 때 입는 화상
	증기 화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끓는 물이나 포트 등에서 뜨거운 증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 입는 화상
	저온 화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기기, 온열제품에서 나오는 40~60℃의 열에 노출되어 입는 화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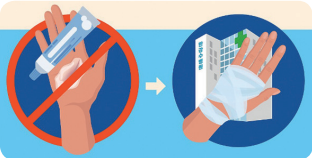
응급처치는 이렇게 해 주세요



- 화상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식혀주기



- 물집 또는 피부가 벗겨진 경우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싸 주기



- 상처 부위에 연고나 품제제를 붙이지 않고 상처 보호 후 화상병원 진료보기

어린이 화상사고 예방하기

Check List



- ☒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- ☒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닿지 않도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- ☒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☒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.
- ☒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.
- ☒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.
- ☒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둔다.
- ☒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.
- ☒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.
- ☒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.

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

화 상



사고 사례

• 화재 대피 중 화상

일시	'23년 2월 22일 04시경
피해현황	70대 여성 안면부 1도, 양쪽 손과 발 2도 화상
사건개요	주택 화재 피난 대피 중 화상



• 가정 내 영유아 열탕 화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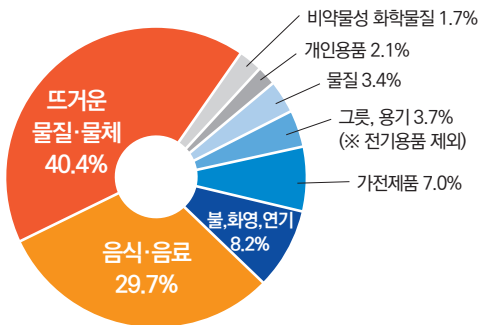
일시	'22년 11월 25일 11시경
피해현황	1세 여아 2도 화상
사건개요	식탁에 있던 설령탕 그릇이 엎어지면서 화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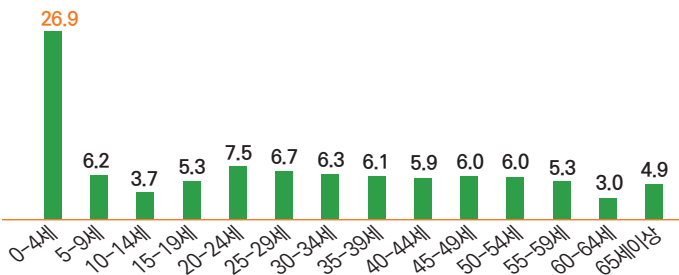
사고 현황

전국 화상사고 현황(5년간, '14~'18년)

원인별 • 뜨거운 물체 및 음식으로 인한 화상이 70% 차지



연령별 • 0~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(26.9%)



화상의 종류 및 구분

화상의 종류

구분	내용	주요 증상
열상화상 	화기나 뜨거운 물체 접촉으로 발생	1도, 2도, 3도 화상 - 피부손상정도 확인
화학화상 	유독성화학물질(강산, 강알칼리)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	다른 화상과 달리 화학화상은 천천히 증상이 나타남
전기화상 	전압 전류 접촉으로 피부에 닿는 면적은 적지만 큰 손상 발생	전류로 인해 피부를 포함하여 신체 곳곳에 손상이 있을 수 있음
흡입화상 	화재 시 고온의 열기나 유독가스 흡입에 의해 발생	불에 그을리거나 탄 코털, 흰 목소리, 검은 탄소 가루가 섞인 가래

화상의 손상 정도

• 화상은 손상된 깊이에 따라 구분

1도화상 	2도화상 	3도화상
표피층 손상으로 통증과 함께 붉게 부어오름	진피층까지 손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김	표피지방까지 손상으로 창백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
3~6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	물집 껍질을 뒹어둔 채로 병원 진료 받기	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말단 파괴 (피부 이식 필요)

화상 종류별 국민행동요령

열 화상



- 흐르는 시원한 물에 15분 정도 식히기
※ 노약자의 경우 저체온증 주의



- 상처 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덮기

화학화상



- 가루 형태는 털어내고 액체 형태는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어내기
※ 최대한 빨리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



-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의복은 조심스럽게 제거하기

전기화상



- 전류를 차단 후 환자에게 접근하기
※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기



- 열화상 시 행동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히 병원 이송하기

흡입화상



- 지체없이 신속히 119 신고하기



- 호흡 곤란 시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의식,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